



## 그레이스 유 후보 “또 한 번의 기적을 기대합니다”



감사 인사를 전하며 선거 마지막 날까지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레이스 유 후보



예배를 마친 참석자들이 그레이스 유 후보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미국 LA 10 지구 시의원에 출마하는 그레이스 유 후보 당선 기원 예배가 지난 14일, LA 광명교회(담임 김영석 목사)에서 남가주 목회자와 성도들이 자리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그레이스 유 후보가 20일 앞으로 다가온 3월 3일 예비

선거에서 당선돼, LA를 넘어 미국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 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도했다.

이날 “위대한 승리”(삼상 17:45-58)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이정현 목사(남가주 한인 목사회 회장)는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골

리앗을 무너뜨린 디윗과 같이, 그

레이스 유 후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승리 할 줄 믿는다”며 “믿음으로 전진해 미국 땅에 성경적 가치를 회복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정치인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그레이스 유 후보는 “제 삶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기적들의 연속이었다”며 “또 한 번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나아간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류당열 목사(전 남가주 교협 회장)는 “그레이스 유 후보가 미 주류

사회 정치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미국의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란다”며 “남은 기간 10 지구 한인 교회와 성도들의 성원과 한인들의 유권자들의 등록 및 투표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동욱 기자

## 김지연 대표 “비정상적 성행위, 반드시 질병으로 이어져”

‘성경적 성 가치관과 그리스도인’ 이란 주제로 남가주 교회서 세미나 진행



LA 사랑의교회에서 세미나를 인도하는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

들은 잘못된 성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의 위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정상적인 성행위는 반드시 질병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김 대표는 이어 캘리포니아 공립 학교의 성교육 문제를 지적하면서 “

들을 장려하고 동성애 부부들의 자녀 입양을 권장하고 있다”며 “남녀 간의 성 정체성을 불분명하게 만들고, 자신의 성을 고르도록 유도하면

서 아이들을 성 정체성 혼란에 몰아 넣고 있다”고 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남자와 여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른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 성기를 떼거나 붙여서는 절대로 바꿀 수 없다”며 “캘리포니아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기독교인들이 들고 있거나 동성애의 폐해와 심각성을 알리고, 성적인 문란으로 몰아가는 악법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자녀들이 음란물 중독이나 성적인 죄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부모부터 죄와 싸워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쾌락 만능주의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차세대를 위한 믿음의 양육자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신실한 가정이 돼야한다”고 당부했다.

김동욱 기자

**Christian Healthcare Ministries**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미주최대 의료협동조합 [www.chman.org](http://www.chman.org) 714.738.1234

[www.saseducation.weebly.com](http://www.saseducation.weebly.com)  
**I-20**  
**자격신청**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213)833-8208  
2975 Wilshire Blvd. #B01., LA, CA 90010  
summitus37@gmail.com

- 직업전문대학인가(ACICS)
- 신학교 인가(TRACS, ATS)
- BPPE 신규 및 재승인
- 온라인교육 세팅 및 운영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http://www.samsungmoving.com)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물류 1-877-580-2424** 삼우수 (310)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mailto: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원박력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씨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 하와이, 괌, 알리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 해외이사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 미주성시화운동본부, 김경진 목사 공동회장으로 위촉

창립 17주년 기념예배 드리고 2020년 사역 계획 발표

미주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송정명 목사, 진유철 목사 이하 미주성시화)가 사역 확산을 위해 임원단을 증원했다.

미주성시화는 지난 17일, 창립 17주년 기념예배를 드리고 김경진 목사(기쁜우리교회)를 공동회장으로, 정찬용 변호사를 법률 자문으로, 김권수 목사를 지도 위원으로, 홍석자 권사, 이지락 장로, 김승현 회장을 이사로 위촉했다.

현재 미주성시화는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 OC 대표회장), 이성현 목사(샌디에고연합감리교회 샌디에고 대표회장), 임현수 목사(토론토 근빛교회 원로 캐나다 대표회장), 김상돈 목사(파테말라한인교회 과테말라 대표회장)가 지역 대표 회장 및 공동회장을 맡고 있으며, 이종용 목사(코너스톤교회)와 민경엽 목사(나침반교회)도 공동회장이다.

미주성시화는 현재 35명인 이사를 40명으로 증원하고 수요 지도자 훌리클럽, 여성 훌리클럽, 목회자 훌리클럽, 신학생 훌리클럽 등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을 위한 월례 구국 기도회, 오는 4월 청교도 400주년 기념 연합 포럼과 미 대통령 선거를 위한 기도회, 5월 미국을 위한 연합기도회, 9월 신학대학 연합 설교 페스티벌, 10월 다민족 연합기도회,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창립 17주년 기념예배에서 참석자들이 미주 지역 복음화를 위한 협신을 결단하고 있다.

국제성시화 대회 참가, 도시 총력전 도 운동, 험리스 쉘터 지원, 동성애 관련 법안과 반기독교 법안 저지 운동 등을 2020년 사역 계획으로 발표했다.

이날 기념예배는 최종현 장로(미주성시화 부이사장)의 사회로 백은학 장로(LA 훌리클럽 회장)가 대표 기도하고 진유철 목사의 설교 후 이종용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진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성취와 민족복음화의 일원으로 시작된 성시화의 힘은 건물이나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예수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에 있다”며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던 바울과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을 걸어가자”고 전했다.

한편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거룩하게 하자”는 취지로 종교개혁자 칼빈의 제네바 성시화 운동을 모델로 삼아 시작된 성시화 운동은 한국에서는 1972년故 김준곤 목사를 중심으로 시작됐다.

2003년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시작된 미주성시화운동은 박희민 목사(명예 대표회장), 송정명 목사(대표회장), 한기형 목사(전 상임회장)가 초창기부터 이끌었으며 교계 및 사회 지도자, 여성, 청

년으로 구성된 각각의 훌리클럽을 통해 정례 예배와 기도회를 꾸준히 진행하면서 2008년 LA 다민족 성시화 대회, 2011년 11월 로즈볼 다민족 연합 기도회, 2012년 10월 크랜서 크리스천 센터 다민족 연합 기도회, 2016년 4월 아주사 나우(Azusa Now) 다민족 연합 기도회 등 대규모 기도 집회를 주도해 왔다.

김동욱 기자

## 정찬용 변호사 “한인들의 소중한 한 표로 당락 결정돼”

LA 카운티 제2지구 슈퍼바이저 출마  
3월 1일 주일 투표소 방문해 선거권 행사해 달라 요청

LA 카운티 제2지구 슈퍼바이저에 출마한 정찬용(Jake Jeong) 변호사가 오는 3월 3일 선거를 앞두고 남가주 한인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성원을 요청했다.

LA 코리아타운을 비롯해 사우스 LA, 컬버시티, 가디나, 캄튼, 레녹스, 웨체스터 지역 등을 포함하는 LA 카운티 2 지구는 전통적으로 흑인 슈퍼바이저가 지역을 대표해 왔으며, 허브 웨슨 전 엘에이 시의장과, 잭 페리 전 엘에이 시의원 등 유력한 흑인 후보가 출마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지명도가 높은 정치인들이 겨루고 있는 가운데 유일한 아시안 후보

인 정찬용 변호사는 한인들의 결집된 투표가 있다면 당선이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정 변호사는 “3만 명의 한인 유권자가 결집하면 당락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한인 유권자들의 결집된 표가 절실히다”며 “오는 3월 1일(주일) 주일 예배를 전후로 투표소에 방문하셔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 “부정부패를 몰아내고 국민과 진정으로 소통하는 깨끗하고 바른 정치인이 되겠다”며 “저렴한 주택 10만 호를 건설해 험리스 문제와 주택문제를 해결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를 만들어 더욱 살

기 좋은 커뮤니티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선거는 유권자가 거주지에 따른 지정된 투표소가 아니라 가까운 투표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교회나 단체에도 임시 투표소가 설치되는 등 예년에 비해 편리해졌다. 또한 선거 당일 4일 전인 2월 29일(토)부터 투표소를 방문해 사전 투표가 가능하다.

LA 한인타운 내에는 동양선교회, 찰스 김 초등학교, 코행가 초등학교, 하버드 초등학교, 월서파크 초등학교, 서울국제공원 등 6곳에 서 가능하다.

김동욱 기자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슈퍼바이저 제2지구 선거에 출마하는 정찬용 변호사

##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3월 꽃 나들이

### 플라워 필드 와 제비 축제 기차여행 편

2020년 3월 21일 (토요일) 1일



\$120

문의  
기독일보  
213.434.1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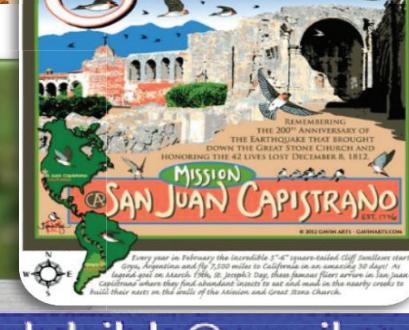
장소	시간	일정표
기독일보 필드	08:00	- 3020 Wilshire Blvd #160. LA, CA 90010
일식 뷔페	10:00	- 칼스바드 플라워 필드 도착
오션사이드	12:00	- 트랙터 타고 꽃 밭 투어 후 중식(일식 뷔페)
산후안	13:30	- 오션사이드로 이동 오션사이드 피어 힐링
카피스트란о	14:51	- 기차 탑승 페시픽 코스트 기차여행
기독일보	15:29	- 산후안 카피스트란о 도착 및 제비 축제
	17:30	- 기독일보 도착 및 해산



포함 사항 - 중식(럭시 일식 뷔페), 플라워 필드 입장료, 꽃 마차 투어 요금, 대형 버스 요금, 기차(Oceanside - San Juan Capistrano) 요금.

The Luxe Buffet

불포함 사항 - 모든 팁(버스 기사, 전문 인솔자 등), 음료와 주류 일제, 여행보험



Tel. 213.739.0403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 chdailyla@gmail.com



Tel. 213.739.0403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 chdailyla@gmail.com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145

## “2020 사역자 컨퍼런스에서 Youth 들에게 생긴 일”

필자가 섬기는 인터콥 선교회에서는 매년 2월에 3박 4일로 미주 전 지역(4개 지부)에서 섬기는 간사 스템들이 모여 예배와 훈련을 받는 사역자 컨퍼런스가 있다. 이번에도 휴斯顿 힐튼호텔에서 약 800여 명이 모여 은혜중에 마쳤다. 해마다 변화되는 사역자들의 모습이 있다면 갈수록 다민족 분포가 더해지는 것이다.

이제 곧 각 지부별로 비전스쿨이 진행되고 수백 명의 단기선교 팀들이 구성되고, 여름철엔 전미주 선교캠프가 열리므로 이 모임들을 준비하는 데 기도와 헌신적인 영적 준비를 위해서 사역자 컨퍼런스는 더없이 소중한 집회라 할 수 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 명의 사역자들이 참여하였다. 교회 안에 EMYG(영어권 청년)들은 예배팀, 진행팀, 안내팀 그리고 Youth 모임을 섬겼다. Youth(중고등부)들도 따로 120명 정도 참여하였다. 오늘은 Youth의 리더십을 맡은 우리 교회 청년 간사의 간증을 기록한다.

“Youth를 담당할 간사 스템들이 이를 먼저 현지에 가서 준비하며 기도회를 갖는데 먼저 우리 스템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로 매달리며 참여할 120명의 Youth들을 기다렸다.

참석자 중에 엘에이 비전시각장애인선교회 담임이신 C목사님이 있었다. 군대에서 시각을 잃고 30년 시각장애인으로 살았는 데 그분은 이렇게 생명력 있고 서로 다른 언어로 찬양을 부르는 하나님 군대의 찬양을 들어 본 일이 없다고 하며 크게 감동을 하였다.

우리 어린 Youth들도 함께 찬양을 드리고 말씀 시간부터는 다른 예배실로 이동하여 Youth만이 드리는 프로그램을 가졌다. 아이들 중 잘 섞이지 못하고 있는 몇몇 아이들이 청년간사의 눈에 띠었다. 다가가서 안녕! 잘 지내니? 인사를 했을 때 한 아이가 “선생님! 다른 아이들은 저렇게 기도도 잘하고 하나님과 가까운데 나도 그러고 싶은 데 잘 안돼요. 괜히 온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아이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께 이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번에 꼭 응답받을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도와줄게 하며 같이 기도했다. 그러는 중에 울음이 터졌다. 선생도 울고 아이도 울고 그러면서 아이는 뜻밖에 고백을 했다. 선생님 내가 죄를 지었어요. 음란한 동영상에 빠졌고, 동성애의 마음도 있어요.

청년간사는 그 아이와 같이 울면서 회개기도를 가르쳤다. 하나님께 내가 지었던 죄를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저의 죄를 고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다음번 강의를 들었는데 선교회의 K 선교사가 나와서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아! 하나님의 인도다. 그 강의를 듣고 Youth 자녀들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엄마 아빠가 이혼하려고 하는데 충격 속에서 방황하다가 담배를 피우고, 마리화나를 한 것을 회개하는 아이, 미워서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아이,

음란에 빠져 있는 아이들이 많았다. 성폭행을 당한 아이들의 고백, 믿음 생활을 잘하던 친구였는데 교회와 선교회 안에 사역만 있지 사랑은 없다고 말하며 멀어져 있던 아이들 등. 수없이 많은 회개와 기도 제목들이 기도하는 중에 막 터져 나왔다.

계속되는 강의와 예배 종족 모임 등을 통해 Youth의 어린 영혼들은 그 영혼의 치유가 이루어졌다. 마지막 날이 되어 11학년 된 한 아이가 청년간사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선생님, 저 이번 여름에 HSM(여름방학 때 2개월간 가는 Youth 단기선교) 가고 싶어요. 갈 수 있나요?” “why not. Sure, you can go!” 하며 그 아이를 안아 주었을 때 그 아이는 눈물을 흘렸고 그를 보던 간사도 함께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이 말을 전하며 청년간사는 내게 요청했다 “목사님! 우리 Youth들이 변하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계속 기도해 주세요.”

## 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 그리스도인과 신종 바이러스!

중국 우한 발 신종 코로나 19의 확산이 뉴스와 대화의 중심을 차지합니다. 다행히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기세가 꺾였지만 중국 당국의 미심쩍은 대처로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무서운 전염병 확산의 충격이 큽니다. 소규모 상인들, 식당들, 특히 관광에 관련된 산업들이 큰 타격을 받습니다.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자제되는 상황이라 여러 음악회와 발표회들이 취소되면서 문화산업의 타격도 예외가 아닌 듯합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심지어 어느 교회는 주일에 문을 닫고 방송 설교로 예배를 대체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여전히 논란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염병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금번 신종 코로나의 경우만 아닙니다. 근래에 각종 전염병들로 교회가 당황했습니다. 멀리는 중세 교회가 쇠락하는 중요한 이유들 중에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당시 전염병이었던 흑사병(페스트)의 창궐입니다. 중세 수도원에서 흑사병에 바른 대처를 하지 못해서 수천 명이 몰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신앙인의 바른 대처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사뿐만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서 이미 전염병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전염병은 개역개정 성경에 55회 등장합니다. 유사어 돌림병이 2회 등장하고, 같은 의미인 역병이 1회 등장합니다. 주로 구약에서 사용되지만, 중요한 신약 본문들에서도 전염병이 등장합니다. 전염병이 사용되는 본문들을 살펴보면 성경에서 전염병의 의미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하나님을 대적할 때 각종 전염병과

염병으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삼하 24:10-17). 범죄 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징계 3종 세트가 출애굽기, 예레미야나 에스겔에서 30회 정도 반복됩니다. 전염병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심판 도구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과의 징계를 의미합니다.

둘째, 신약 성경에서 전염병은 말세의 징조와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말세의 징조로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을 말씀합니다. 심판이 임박한 말세의 징조가 전염병입니다(눅21:11). 고국의 소식은 말세의 현상입니다. 이단과 사비이가 범람하고, 영혼을 미혹하는 점술이 호황입니다. 어린이들이 스마트 폰으로 흥측한 음란물을 즐기고, 경치 좋은 곳마다 러브호텔이 있고, 서울 한복판에서 동성애 축제가 대대적으로 열립니다. 소동과 고모리를 능가하는 타락입니다. 심각한 것은 이런 현실을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아파하지 않습니다. 아파할 힘도 반대할 거룩한 영향력도 없습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의

초란한 모습입니다. 전염병이 등장 할 말세입니다.

셋째, 성경에서 전염병은 하나님과의 도움과 구원의 도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전염병을 사용하셨습니다. 출애굽 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애굽 사람들에게 전염병을 재앙으로 내리십니다. 전염병은 10 가지 재앙 중 하나입니다. 시편 91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성전 건축 후 기도하던 솔로몬이 역대 6장 28에서 전염병이나 무슨 재앙이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지점에서 전염병이 언급됩니다. 전염병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여 주시는 증거였습니다. 막강한 전염병은 하나님만이 다스릴 수 있습니다.

전염병을 보는 관점은 다양합니다. 방역 전문가는 방역의 안경으로 전염병을 봅니다. 사업가는 사업가의 눈으로 전염병을 봅니다. 외교 전문가는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관계에 미칠 영향력을 살핍니다.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은 신종 바이러스 사태를 신앙의 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종 바이러스를 누구의 실수나 잘못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는 관점으로 이 사태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종 바이러스는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요 막대기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이것은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알려주시는 메시지로 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팔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희생과 막대한 손실을 주는 이 신종 바이러스가 영적인 백신을 얻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사장 : 존 킴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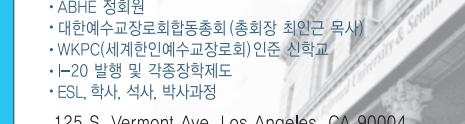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 2020 미주기독대학박람회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총회장 최근근 목사)

• WKPCI(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종회원

• 기독교학회(BA), 목회학회(MDiv), 상담학회, 선교학회, ESL\_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I-20 자제 발행

• 인수 후 미국 및 한국에서 시각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호숙 박사 T(626)227-34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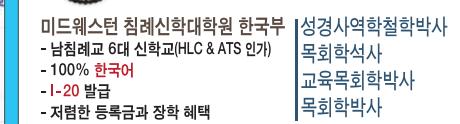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이사장 : 조종근 박사

1818 S. Western Ave #400,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master@gmail.com



for the Church America MBTS

Midwestern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칠레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대신학회(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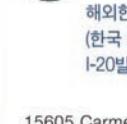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5001 North Oak Tropicana,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총회 목사고시, 인수기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M.T.S.)

상담분야: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전화: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E-mail: ggts@ggts.edu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E-mail: admissions@gm.edu www.gm.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 모세오경 세미나, 성경이 보인다!

오는 4월 29일(수)부터 5월 1일(금)까지 플로리다 템파 국제교회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 삶에 변화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모세오경 세미나는 미주 한인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특별히 우리 2세들을 위해 꼭 필요한 세미나이고 훈련 방법입니다.”

템파 성경연구원(원장 장진광 목사)은 오는 4월 29일(수)부터 5월 1일(금)까지 플로리다 템파 국제교회(담임 진제임스 목사)에서 미주 지역 목사와 선교사, 신학생을 대상으로 모세오경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 강사로는 한국 삼마교회 이일성 목사(모세오경 아카데미 원장)가 나선다.

모세오경 세미나는 ▶창세기-주권 세우기 ▶출애굽기-세상을 끊는 것 ▶레위기-거룩한 예배자 ▶민수기-교회론 ▶신명기-반복하는 책이라는 다섯가지 챕터로 나뉘어 성도들의 신앙적 견문을 넓히고 마음을 키워 일꾼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가정에서의 교육을 강조하는 말씀 훈련 과정이다.

이일성 목사는 “많은 목회자분들이 성도들이 성령을 받으면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하지만 성령의 은사 혹은 체험을 받았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열정이 식어지고 성장의 열매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워진다”며 “성도들이 모세 오경 세미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하심을 깨닫게 될 때 삶의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평신도 교육 연구소장을 지낸 이일성 목사는 1995년 교회 개척 후 아무리 가르쳐도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서 ‘죄의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이는 성도들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이 목사는 이후 모세 오경 세미나



지난달 30일 극동방송 주최로 목포 예닮교회에서 모세 오경 세미나를 진행하는 이일성 목사



이일성 목사가 모세오경 목회자세미나에서 순복음삼마교회 성도들과 함께 훈련 시범을 보이고 있다.

를 통해 인생의 명확한 주권과 유혹의 절연, 거룩으로의 삶, 말씀으로 축복받은 성도와 강한 복음의 전파자로 살도록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있다.

이 목사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줘야 하는 영적 원리가 모세오경 가운데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특별히 죄의 문제, 죄 사함의 길, 인생의 주권과 성령 충만의 중요성 등을 성도들에게 바르게 인식시켜줘야 한다”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듯이 교회의 영적 견문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 비밀은 가정에 있다. 부모가 군사가 되면 가정 교육을 통해 명문 가정이 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다”고 강조

한다.

이일성 목사는 “성도들의 신앙적 견문을 넓히고 마음을 키워 주의 일꾼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 비밀은 가정에 있다. 부모가 군사가 되면 가정 교육을 통해 명문 가정이 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다”고 전

했다.

이 목사는 또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아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하는데,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영적 권능을 길러줄 수 있어야 한다”며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가 아니라,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훈련된 성도를 기르는 것이 목회자의 참된 사명”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 목사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줘야 하는 영적 원리가 모세오경 가운데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특별히 죄의 문제, 죄 사함의 길, 인생의 주권과 성령 충만의 중요성 등을 성도들에게 바르게 인식시켜줘야 한다”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듯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는 말씀의 바른 이해와 교육으로 성도들의 믿음 생활을 분명하게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세미나 초대의 말을 전했다.

그는 또 “모세오경 세미나의 핵심은 레위기로 성막 안에서 이뤄지는 예배의 회복”이라며 “한국 교회에 유월절 어린양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반드시 회복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미나를 준비하는 진 제임스 목사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았지만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기 때문에 성화되지 않고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모세오경 세미나는 가장 확실한 성도 훈련 방법으로 미주 한인교회와 특별히 2세들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세미나 등록비(교제, 접심 포함)는 150달러이며 부부 참가자 2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2월 29일(토)까지 접수시 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일보에 2019년, 2020년 연속 기사화 되고 있는

# 모세오경 세미나

**“하루를 투자하면 성경이 보인다!”**

강사(SPEAKER): 삼마교회 이일성 목사(모세오경 아카데미 원장)

전 한세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전 연산신학원 교수  
전 한국 오순절 교회 협의회 회장  
현 기독교복음 방송 Goodtv 사목  
현 Goodtv 운영위원회 사목  
극동방송 은혜의 동산  
현 한국 Oral Robert University 총 동문회장  
현 경기 북 총 연합회 부총회장  
현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회장  
현 파주경목회 임원  
동서남북 언론 정치인 성경훈련

참가대상: 목사, 선교사, 신학생      참가비용: 150불(세미나 교재, 접심 포함)  
부부 참가시 20% 할인, 2월 29일까지 접수시 20% 할인

UNDERGROUND  
church. network. movement.

주최: 템파성경연구원(원장 장진광목사)

후원: 삼마 모세오경 아카데미

협찬: Tampa Underground Network

(tampaunderground.com)

◆일시: 2020년 4월 29일 ~ 5월 1일

◆장소: 템파 국제교회

12335 University Mall Ct. Tampa, FL 33612

◆접수마감일: 3월 15일

◆접수처 및 연락처: 템파 모세오경 세미나 간사

장성자 목사 727-247-8612

진제임스 목사 813-808-9349

pentateuch2020@hotmail.com



# PRESIDENTS' DAY SPECIAL SALE



## NEW 2020 HYUNDAI ELANTRA SE

Lease **\$148** +Tax Or 0 Down **\$22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0,00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4,00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0,000 MILES/YEAR.



## NEW 2020 HYUNDAI SONATA SE

Lease **\$188** +Tax Or 0 Down **\$26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4,3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2,00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VOC,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0,000 MILES/YEAR.



## NEW 2020 HYUNDAI TUCSON SE

Lease **\$198** +Tax Or 0 Down **\$27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4,7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2,2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0,000 MILES/YEAR.

## NEW 2020 HYUNDAI SANTA FE SE

Lease **\$218** +Tax Or 0 Down **\$29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7,1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3,00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0,000 MILES/YEAR.



STEVE CHANG



PAUL KIM



MIKE LEE



JUSTIN KIL



CHARLEY JEONG



JAMES PARK



HARLEY KIM

###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See Dealer for Limited Warranty Details.



Assurance



**HYUNDAI**  
**1-888-644-7114**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http://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작은 교회를 위한  
부흥 사경회 섬김 사역

이 땅의 사람들에게 유일한 영원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세워진 주님의 교회를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 힘입어 섬기고자 합니다. 사례비, 교통비의 비용을 자비랑하며 섬기고자 하오니 혹시 집회가 필요하실 경우 연락을 주시면 일정을 조절하여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개척 37년목회 원로목사  
KAPC(미주 한인 예수교 친교회) 총경 총회장  
현. 중남미 선교 회장  
유튜브 방송(복음 채널) 방송선교

연/락/처  
**김상덕 목사**  
**T.(714)213-1342**  
**sangdkim@yahoo.com**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로 활짝 웃으세요.

**프로지**  
**PRO-Z**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이 없으며 빠를수록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 10명 중 3명은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연령대별 당뇨병	30~44세	45~64세	65세 이상
환자 인구율	54.4%	73.2%	81.3%

특히 30~44세의 젊은 당뇨병 환자는 거의 절반에 기까운 환자가 당뇨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병 \$69+Tax**  
**3병 \$180+Tax**  
**6병 \$350+Tax**

**PHC PRO-Z Glucose Control**  
Glucose Control  
Clinical studies show that PRO-Z  
supplement may help reduce blood glucose levels.  
80 capsules  
Biosyntex  
Biosyntex  
Biosyntex

핵심은 아연의 흡수  
(CHP 특허물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

**문의 전화** 213. 434. 1170  
3020 Wilshire Blvd. #160, LA, CA 90010 [www.prozusa.com](http://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mailto:prozusa1@gmail.com)

LOS ANGELES MONTEREY PARK GOLF ACADEMY  
일반인·주니어를 위한  
특별 맞춤 골프 프로그램

■ 대상 : 일반인·주니어 레슨(8살~18살)

■ 시간 : 평일 레슨(화~금), 주말 레슨(토)

■ 장소 : Monterey Park Golf Club  
(LA한인타운에서 차로 15분 거리)

- 골프 선수를 꿈꾸는 꿈나무,

대학진학 전문상담

- PGA 투어 출신 프로가 체계적인 스윙 교정,  
숏 게임, 필드 레슨까지



Robert Sul  
University of Las Vegas Golf Team's  
2 Times 백상배 챔피언  
2009 KPGA TOUR  
AJGA all-American  
Golf Digest Top Ten Amateur



**T:(310)749-2522**

## 효사랑 선교회, 제8회 미주 청소년 “효 글짓기, 그림 공모전” 개최



지난해 열린 효 글짓기, 그림 공모전 시상식 단체사진

“나는 누구인가?” 주제로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접수

효사랑 선교회는 “나는 누구인가?(Who Am I?)”라는 주제로 제8회 미주 청소년 “효 글짓기, 그림 공모전”을 개최한다.

작품 분야는 글짓기와 그리기 부문으로 “나는 가정에서 어떤 사람인가?”, “나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인가?”, “나는 부모님을 존경한다”, “나는 코리안 아메리칸이다” 등 다양한 소주제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다.

접수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우편, 방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글짓기 경우 이메일 [hyosarangus@gmail.com](mailto:hyosarangus@gmail.com) 접수도 가능하다.

효 글짓기 분량은 레터지 3페이지(글자크기 12pt)이며, 효 그림은 크기 14”x17”로 크레파스화, 수채화, 드로잉, 아크릴 등으로 그릴 수 있다.

참가비는 20달러이며 둘째 아이부터는 10달러다. (check payable

to Hyosarangus)이며 시상은 오는 4월 25일(토) 10시에 헐러튼 장로교회(515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에서 진행되며 상금은 대상(2명) 500 달러, 최우수상(4명) 300달러, 우수상(6명) 200달러다. 또한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 및 상장을 수여한다.

이번 공모전은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OC교협, OC장로협회, 오픈뱅크, 가주 교육신문 등이 후원한다.

제출 및 문의: 714-670-8004

김동욱 기자

## 2020 세계기도일 예배 올해는 ‘짐바브웨’ 위해 기도



미주한인교회여성연합회 남가주 지부 회장 유희진 권사(가운데)

3월 7일(토) 오전 10시, 인랜드교회

전 세계 교회 여성들이 고통받는 국가의 여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세계 기도일 남가주 예배가 인랜드교회(담임 안환 목사 1101 N Glen Ave, Pomona, CA 91768)에서 진행된다.

세계 기도일 예배는 한 나라의 여성들이 작성한 기도문을 전 세계 여성들이 함께 읽고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현금을 모아 그 나라로 보내는 것이 특징이다. 133주년을 맞은 올해 기도회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 가라”라는 주제로 짐바브웨 여

성들이 기도문을 작성했다.

예배를 준비하는 미주 한인교회여성연합회 남가주 지부 회장 유희진 권사는 “세계기도일 예배는 초교파적인 모임으로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다”며 “인종과 문화, 성별과 빈부, 전쟁과 분쟁을 넘어 세계 평화와 인권, 자유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이라고 소개했다.

세계기도일 예배는 세계 180여 나라의 교회 여성들이 매년 3월 첫째 금요일에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초교파 연합예배로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주제로 지구 자전과 함께 24시간 여성들의 기도가 이어진다.

1887년 다윈 제임스 여사(미국 장로교 국내선교부 의장)가 당시 유럽, 아시아等地에서 미국으로 유입된 이민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을 정한 데서 유래된 세계기도일은 현재 180개국에서 지키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1922년 만국부인회가 중심이 되어 세계기도일에 참여했으며, 현재는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세계기도일을 지키고 있다.

미주에서는 한인교회여성연합회를 중심으로 1979년부터 세계기도일을 지키고 있으며 현재 미주 70여 개 지역에서 기도회가 열리고 있다.

한편 미주 한인 교회 여성 연합회는 세계기도합창단(World Prayer Women's Chorale)의 단원모집을 모집한다. 합창 단원은 세계 평화와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며 찬양하길 원하시는 크리스천 여성으로 세계기도일예배 흥보대사로 활동한다.

김동욱 기자

## 얼바인 베델교회 인기 생활강좌 개강

다양한 과목 개설  
3월 첫째주 개강

얼바인에 위치한 베델교회(담임 목사 김한요,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는 ‘봄학기 베델 생활강좌’를 3월 첫째 주부터 개강한다.

베델 생활강좌는 베델교회 교인뿐 아니라 지역사회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며, 평소 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종교가 다른 이들도 수강할 수 있다. 자신도 몰랐던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따스한 만남의 공간도 제공하는 이번 봄학기 생활강좌에서는 기초 미술, 한국화, 유화, 서예, 캘리그라피, 퀸트, 꽃꽂이, 포토샵, 일본어, 바이올린, 크로마 오토 하프, 생활 한의학, 시력검사와 안경제작, 테니스, 피크 볼, 훙 로스팅 커피강좌에 이



캘리그라피에 열중하고 있는 베델 생활강좌 수강생들

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과목들이 수강생들을 기다리고 있다.

강사진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기과목은 조기 마감될 수도 있다고 한다. 4주 코스부터 12주 코스까지 다양하게 진

행되는 이번 강좌의 수강신청기간은 3월 1일까지이며, 베델교회 웹사이트 [www.bkc.org](http://www.bkc.org)로 가서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949) 288-3524 황사균 집사에게 하면 된다.

## 美 남침례회, 복음주의 가치관에서 벗어난 좌파적 견해 반대



©미국 남침례회 윤리·종교자유위원회(ethics&religious liberty commission)

### '워크' (woke) 트렌드 우려하며 복음과 성경 강조

미국 최대 교단인 남침례회(SBC)가 소위 '워크'(woke) 트렌드로 기울고, 점점 복음의 본질에서 멀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그 안에서 복음과 성경을 강조하는 새로운 네트워크가 형성됐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14일 보도했다.

여기서 말하는 '워크'는 영어 단어 'wake'의 과거형으로 이르바 '깨어났다'는 뜻이다. 미국에서 정치적 용어로 쓰이는데, 현지 교계에선 전통적인 복음주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좌파적 견해를 가진 그룹을 '워크 처치'(woke church) 등으로 부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인종차별에 있어 '백인 기독교인들'의 잘못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매우 편협한 시각이며, 복음의 가르침에서 벗어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분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SBC 내에서 생겨난 이 네트워크도 이런 우려에 따른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보수적 침례교도'(Conservative Baptist Network)라 불리는 이 네트워크는 이날 그 공식 출범을 알렸으며, SBC 내에서 복음을 다시 선언

하는 '뿌리'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성경을 무엇보다 우선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그러나 이 네트워크가 단지 기존 흐름에 대한 불만에 따라 새로운 교단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며, 또한 인터넷 블로그 및 소셜미디어 페이지에 지나지 않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한다.

루지애나 보시어 시티에 있는 제일침례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이 네트워크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브라드 유코비치(Brad Jurkovich) 목사는 "우리는 SBC의 현 상황, 특히 인간의 성(性)과 성경적인 인종 간 화해, 그리고 사회주의적 정의(socialistic justice) 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비틀리는 것에 우려한다"고 말했다고 CP는 전했다.

또 유코비치 목사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인데, 미궁에 빠지는 SBC를 보고도 그냥 침묵하거나, 아니면 교단을 완전히 떠나거나, 혹은 그 안에 남아서 교단이 잊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보수적 침례교도 네트워크'는 바로 세 번째 선택을 지지한다고.

그러면서 그는 "지금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 교회의 불행한 종국을 맞을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켜 다시 부흥을 경험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미경 기자

### 복음주의 정체성 가진 美 목회자 대부분 “동성결혼 반대”



©Pixabay

### 라이프웨이 리서치 조사 연구 결과 발표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개인교 목회자들 중 스스로를 복음주의자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대다수가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입장은 밝혔다고 15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라이프웨이의 조사에 따르면 이들 복음주의 개신교 목회자 중 약 8%만이 동성결혼에 문제가 없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 2010년 조사 결과와 비슷하다.

그러나 자신을 '주류 개신교 목회자'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선 동성결혼 지지 비율이 꽤 높았다. 지난 2010년의 32%에서 2020년에는 47%로 증가했다.

교파별로 분류하면 장로교/개혁파(49%), 감리교(47%), 루터교(35%)의 목회자들은 침례교(3%) 또는 오순절교회(1%)의 목회자들보다 동성 결혼에 문제를 있다고 인식했다.

이 연구는 또한 백인 목회자(27%)가

아프리카계 미국인 목회자(15%)나 다른 인종의 목회자들(6%)보다 동성결혼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인식할 가능성은 더 높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박사 학위(27%) 또는 석사 학위(32%)를 가진 목회자가 박사 학위(9%) 또는 대학 학위가 없는 (6%) 목회자보다 동성 결혼을 지지 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또 출석률이 50명 미만인 교회의 목회자(33%)가 출석률이 1백명 이상인 교회(19%)보다 동성결혼을 지지 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맥코넬 대표는 "동성결혼에 대한 목회자들의 견해는 교단 전통보다 성서적 견해와 더 큰 관련이 있다"면서 "복음주의의 특징은 변화하는 문화적 관점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신념을 지배하는 궁극적인 권위다. 교단이 다른에도 불구하고 복음주의 목회자들이 공통적으로 같은 렌즈를 통해 동성결혼을 인식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분석했다.

강혜진 기자

## 교회 및 선교

### LA 지역

<p>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생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수,금)</p> <p><b>LA 백송교회</b>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높 푸르면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245-6616</p>	<p>주일예배 오후 11:00 평신도 리더십훈련 매주 수 오후 7:00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9:00 토요아침예배</p> <p><b>LA 씨티교회</b>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323) 833-9090</p>	<p>주일예배 오전 11:00 교육부 예배 오후 11:00 평신도 리더십훈련 매주 수 오후 7:00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9:00 토요아침예배</p> <p><b>LA 사랑의교회</b> 평신도를 배우고 어민2세를 책임지며, 이민가정을 치료하며,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den 쪽) T. (213)386-2233</p>	<p>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세번기도회 오후 5:30 (월 - 토)</p> <p><b>LA 세계선교교회</b>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412 (6가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p>
<p>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p> <p><b>New Church</b> 전도와 암흑으로 하나님 나라를 제건하는 큰 군대 1340 E 6th St., #419, LA, CA 90021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p>	<p>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후 11:00 Youth예배 오후 11:00 토요연합세번 오전 6:20</p> <p><b>갈릴리선교교회</b>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urch.com</p>	<p>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2:00 유초등부 오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0:30</p> <p><b>갈보리민음교회</b> 그리스도와 / 성도와 / 이웃과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p>	<p>주일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도) 오전 6:00</p> <p><b>나눔과 섬김의 교회</b>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가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p>
<p>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9:00 (월-토)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영상예배)</p> <p><b>나성순복음교회</b>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p>	<p>1부예배 오전 9:00 성인 EM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11:00 한국청년예배 오후 12:30 천양예배 주일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p> <p><b>나성열린문교회</b> 치유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pendoor.org</p>	<p>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도) 6:00 (토)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EM 오전 11:00</p> <p><b>나성제일교회</b> 예수의 온전한 제자 되어 십자가 복음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p>	<p>1부예배 1부 오전 8:00 2부예배 2부 오전 11:00 유년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도) 오전 6:00</p> <p><b>새 일 교회</b> LA Sehil Presbyterian Church 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384-8690, (213)20-7240 Email : lasehil201@gmail.com (8가지)Westmoreland 코너 First Baptist Church 인에 있습니다)</p>
<p>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EM 오전 12:30</p> <p><b>노영호 담임목사</b></p>	<p>1부예배 오전 9:00 청년부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예배 오후 10:50 영어임원유초등 오전 10:50 중고등부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p> <p><b>예수마을교회</b>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인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249-9191, www.lajvc.webchurch.kr</p>	<p>1부예배 오전 8:00 새각족 성경공부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증강기도회 (도) 오후 1:00 유년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전망당 오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후 7:00 증강부 예배 오후 11:00 새벽기도회 (도) 오전 6:00</p> <p><b>정병노 담임목사</b></p>	<p>1부예배 오전 9:00 금요예배 오후 8:00 주일오후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45 (월-금) 매일 밤 기도회 오후 9:00</p> <p><b>정인호 담임목사</b></p>
<p>1부예배 오전 8:30 EM 영예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예배 오후 7:30 중고등부 오전 10:00 유치부, 유년 초등부 오전 11:00</p> <p><b>곽건설 담임목사</b></p>	<p>1부예배 오전 9:00 청년부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예배 오후 5:30 영어임원유초등 오전 10:50 중고등부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p> <p><b>박은총 담임목사</b></p>	<p>1부예배 오전 9:00 금요예배 오후 8:00 주일오후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45 (월-금) 매일 밤 기도회 오후 9:00</p> <p><b>예일한인교회</b>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p>	<p>1부예배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후 11:00 금요전방예배 (도) 저녁 8:30 새벽기도회 (도) 오전 5:30 리세이비언예배 (도) 예배실 오전 11:00</p> <p><b>정장수 담임목사</b></p>
<p>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후 8:00</p> <p><b>김종호 담임목사</b></p>	<p>1부예배 오전 9:00 주일학교 예배 (도)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도) 오전 11:00 금요전방예배 (도) 저녁 8:30 새벽기도회 (도) 오전 5:30 리세이비언예배 (도) 예배실 오전 11:00</p> <p><b>올림픽장로교회</b> 세상을 구현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p>	<p>1부예배 오전 9:00 주일학교 예배 (도)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도) 오전 11:00 금요전방예배 (도) 저녁 8:30 새벽기도회 (도) 오전 5:30 리세이비언예배 (도) 예배실 오전 11:00</p> <p><b>주향 교회</b> 나눔의 행복이 있는 교회</p>	<p>1부예배 오전 8: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도) 이동부예 (도)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도) 오전 11:00 새벽예배 매주 화-토 오전 6:00 청년부 예배 오후 1:30</p> <p><b>김은목 담임목사</b></p>
<p>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금) 라티파 오후 6:30</p> <p><b>이명수 담임목사</b></p>	<p>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도) 오전 6:30 중고등부 예배 (도) 오후 11:00 주중생예배 (도) 저녁 8:30 새벽기도회 (도) 오전 5:30 리세이비언예배 (도) 예배실 오전 11:00</p> <p><b>정운교회</b> 신교로 흘러... 소. 친. 소. 정신의 흘러... 바른교회관의 흘러...</p>	<p>1부예배 오전 9:00 금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매주 화-토 오전 6:00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 (도) 오후 11:00 토요새벽예배회 (도) 오전 6:00</p> <p><b>평화교회</b>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성금을 통해 하나님사역과 이웃사역에 힘쓰는 교회</p>	<p>1부 예배 오전 10:30 2부 예배 오후 1:30 성경 공부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영혼사랑을 실천하는 교회</p> <p><b>김경렬 담임목사</b></p>
<p>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p>	<p>1부 예배 오전 9:0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예배집회 오후 8:00 주중생예배 (도) 저녁 8:30 새벽예배 매주 화-토 오후 6:00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 (도) 오후 11:00 토요새벽예배회 (도) 오전 6:00</p> <p><b>기독일보</b></p>		

1부예배 오전 9:0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박효우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1:00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청년부회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며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 90057  
T.(213) 381-9490

주일부예배 오전 8:00 E.M.(내.침)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6:30(화~토)  
유도부 오전 11:00  
중도등부 오전 11:00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 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이순환 담임목사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산,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친구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동부, 라스 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고태형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화~토) 오전 6:30  
**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 591-6500 sunhand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8:00 이희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어린이예배 오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갓스월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정동석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토)  
**나성교회**  
1620 N.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 (562) 690-7979 F. (562) 690-0038

주일부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신용환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영어기도회 오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내심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김성원 담임목사  
수요예배 오후 8:00 (토)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 세울 받아 함께 일려는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1부예배 오전 8:00 이종천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0:45  
중고등부모임 오전 9:15-10:00(주일)  
수요성공공부 오후 8:00  
금요성공공부 오후 8:00  
새벽기도회(화~금) 6:30(토)  
**뉴송교회**  
새 시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  
1550 Greenbriar Ave, Corona, CA 92880  
T. (951) 272-9126 / www.newsongcorona.com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우영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0 청년부회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기도회 오전 5:20(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화)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asian.org

주일부예배 오전 9: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조응철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안환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후 11:35 수요예배(금) 오후 7:30  
4부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화~금) 5:30(화)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랑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323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이춘준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1:00 금요기도회 오전 9:00  
장대교회 사람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 (901) 966-9191

주일예배 오전 9:00 (지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최승복 담임목사  
오전 11:00 (본성전) 마일아웃-금 오전 6: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시막에 강을 내는 교회”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T. (760) 636-2675 / pspkmc.com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예배 오후 7:30 오전 6:30(토)  
중어성경공부 오후 7:30(화) 汉语圣经班: 周二 晚上 7点半。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 (714) 461-6412

주일예배 오전 8:00 금요예배 오후 7:30 최승복 담임목사  
오전 11:00 (본성전) 마일아웃-금 오전 6: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주일 1부 오전 7:00 JCCC Academy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3부 오전 9:00 오전 10:15, 오후 12:40 (교육관)  
주일 2부 오전 11:00 EM 오전 11:15 (교육관)  
[Blended Service]  
시광부 오전 8:45 (교육관)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 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종교동부 오전 10:30 이정현 담임목사  
2부 오전 10:30 한어부회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 882-9191 F. (818) 882-9777 www.churchnmann.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방수민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EM 예배(1부) 오전 9:00  
금요예배(금) 오전 6:00(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도부 예배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화~금) 5:30(화~금) 오전 6:00(토)  
**베다니한인교회**  
문화로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친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F. (818) 845-1683 / bkhchurch.org

주일 대예배 오전 8:00 EM예배(1부) 오전 9:00 윤대학 담임목사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6:00(토)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 744-9191 www.lolmc.org

1부 예배 오전 8:30 EM 예배(1부) 오전 9:00 오명찬 담임목사  
2부 예배 오후 11:00 EM 예배(2부) 오전 11:00  
금요예배(금) 오전 5:30(화~금)  
새벽기도회(화~금) 5:30(화~금) 오전 6:00(토)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1부) 오전 11:30 유크더군 담임목사  
주일 2부 오전 9:30 사립의 빛 주일 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예배(금) 오후 7:45  
점은이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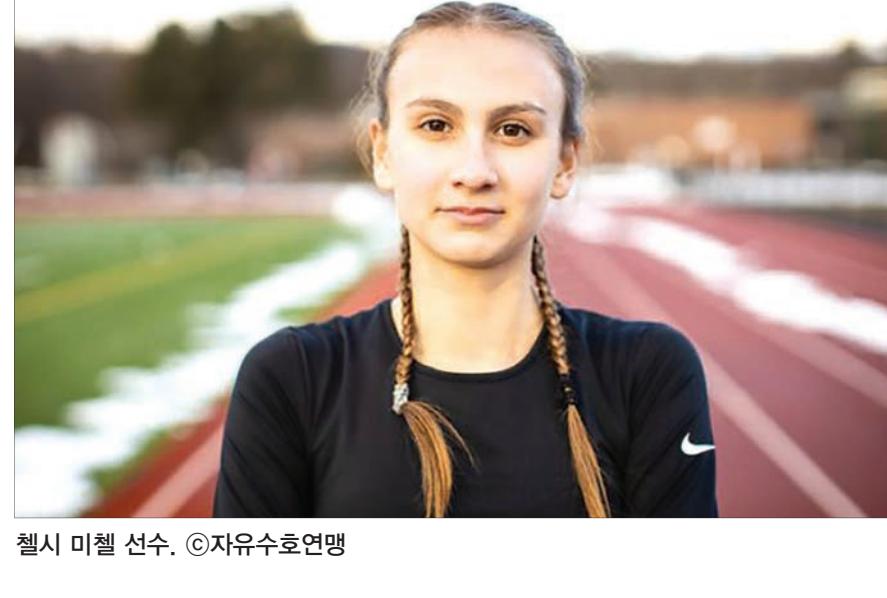
주일 대예배 오전 8:00 EM 예배(1부) 오전 9:0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 예배 오전 8:00 EM 예배(1부) 오전 9:00 최혁 담임목사  
2부 예배 오후 11:00 EM 예배(2부) 오전 11:00  
금요예배(금) 오전 5:30(화~금)  
새벽기도회(화~금) 5:30(화~금) 오전 6:00(토)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민종기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6:00(토)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na Street,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F. (818) 549-9199 choonghyun.org

1부 예배 오전 9:00 주안에교회 김재봉 담임목사  
2부 예배 오후 10:00  
금요예배(금) 저녁 7:45  
새벽기도회(화~금) 5:30(화~금)  
1814 Rincon St., Northridge, CA 91326  
Tel: (818) 363-5867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민종기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6:00(토)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e-mail: iccc.office1@gmail.com

**트랜스젠더 선수 제치고  
주 대회 우승한 美 여학생**

헬시 미첼 선수. ©자유수호연맹

미국 코네티컷주의 한 고등학생이 주에서 주최하는 챔피언십 경기에서 트랜스젠더 여학생을 이기고 우승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19일 보도했다.

캔トン고등학교 학생인 헬시 미첼은 S급 55m 단거리 경기에서 7.18초를 기록하며 우승했다. 블룸菲尔드고등학교의 트랜스젠더 여학생인 테리 밀러는 7.20초로 2위를 기록했다.

미첼은 우승 후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 마음에서 모든 것을 지우려고 노력했다. 이건 경주이고 달리기일 뿐이다. 나에게 집중하려고 했고, 그 외에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부터 코네티컷주는 트랜스젠더 선수를 여자 경기에 출전시키고 있다. 2019년부터 트랜스젠더 운동 선수들의 출전을 허용하고 있는 주는 코네티컷을 비롯해 17개 주로 늘었다.

테리 밀러와 알드라이아 이어우드는 남자로 태어났으나 스스로 여성이라고 인식해 왔으며, 트랜스젠더 수술까지 받고 여자 육상 경기에 출전한 바 있다. AP통신은 이들은 2017년 이후 코네티컷주 실

내·외 단거리 경기에 출전해 총 15차례 우승했다고 전했다.

이에 코네티컷주 소재 고교에 재학 중인 여자 육상 선수 셀리나 소울, 헬시 미첼,

알라나 스미스 등을 지난 13일 “교육 당국이 남성 생식기를 가진 선수들에게 여자 선수들과 경쟁하도록 허용해 여자 선수들이 경기에서 불리한 결과를 얻었다. 이로 인해 대학에 진학할 기회도 박탈당했다”며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트랜스젠더 선수가 여자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한 교육부의 방침은 1972년 여학생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 타이틀 나인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테리 밀러는 “나는 내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우승하고, 공동체를 발견하며, 내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운동을 한다. 난 여성이며 경기에 출전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을 변호하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측은 “타이틀 나인은 XX염색체(여성염색체)를 가진 개인만 보호하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강혜진 기자

**마블 새 영화에  
'양성애자' 스파이더맨 등장 논란**

영화 스파이더맨.

**“아이들 대상으로 한 TV·영화에  
성소수자 급증” 비판 목소리**

마블 히어로물인 스파이더맨의 일부 판권을 소유 중인 소니픽처스(이하 소니)가, 양성애자 스파이더맨이 등장하는 영화를 제작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블로그 ‘We Got This Covered’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소니가 실사 영화 ‘스파이더-벌스’(Spider-Verse)를 제작 중이다. 이 영화는 주인공 힐랜드가 이전 버전의 스파이더맨 토비 맥과이어와 앤드류 가필드를 만나 뭉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제작팀은 특히 가필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안창훈** 담임목사  
2부예배(EM) 주일 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우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이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 1부 예배 : 오전 9: 45 목요찬양예배 : 오후 7시  
2부예배 : 오전 11:00 새벽기도회 : 오전 8:00(화~금)  
유니부예배 : 주일 오전 11:0000 세모임 : 매달 둘째 및 넷째 금요일  
중고등부예배 : 주일 오전 11:00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 (714) 525-0191 / www.ebcscoca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www.dagamsachurch.org

**다 감사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988-3321, (562) 896-1665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어린이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서성서 오전 9:30(금)  
증보기도 오전 9:00(목)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 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후 9:0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고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 821-9900, 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예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일반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2:15 금요기도회 오후 8:00  
영.유아.주일학교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Youth 청년 오후 12:30

**샘물교회**  
샘물이 흘러나와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교회  
11909 Courser Ave, La Mirada, CA 9063  
T. (714) 749-7770 www.saemmool.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종교부 오전 9:15, 11:30  
3부 오전 11:30 한부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KMC대학원부 오후 2:00

**얼바인온누리교회**  
더불어를 세우고 복음을 더하기 위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전 1:30(청년 영예)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9:30 청년부 수요성경기도회 오후 7:30  
4부예배 오전 11:30(청년 한국어) 청년부 수요성경기도회 오후 7:30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회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매월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어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oc.com

주일예배 오전 10:00 금요상경부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예배 오후 7:30

**좋은나무교회**  
말씀을 배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며 예수님의 걸을 따라가는 교회  
1531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www.goodtreefellowship.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영어)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1:45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온예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부는 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예배 오전 10:00 금요상경부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예배 오후 7:30

**좋은나무교회**  
말씀을 배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며 예수님의 걸을 따라가는 교회  
1531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www.goodtreefellowship.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영어)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1:45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좋은마을교회**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T. (714) 646-9259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영어 예배 오전 10:00 오전 6:00(토)  
유초등 예배 오전 11:30

**토기장이교회**  
회복과 회심을 경험하는 예배공동체  
1937 W. Chapman Ave., Orange, CA 92686  
T. (714) 234-5338 / www.potterscc.com  
E-mail: info@potterscc.com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 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 598-9130 breadhoon@hanmail.net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1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PASTOR JOSEPH SU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oh.org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UNG**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la@gmail.com

## 담임목사와 부목사, 서로 직위 바꾸기로 해 화제

익산 꿈이있는교회 노지훈-조정환 목사 이야기



13일까지 담임목사'였던' 익산 꿈이있는교회 노지훈 목사(좌)와 부목사에서 담임 목사로 새롭게 청빙된 조정환 목사(우). 조 목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조정환 목사 페이스북

“담임목사인 저는 오늘부터 부목사로 그만두를 시작합니다.”

리더십 교체 과정에서 전임자와 후임자 간 갈등이 빈번한 상황에서, 담임목사와 부목사가 서로 직위를 바꾸기로 했다는 흥미로운 소식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익산 꿈이있는교회에서 부교역자로 13년간 섬겼다는 조정환 목사는, 13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담임목사와 부목사 역할을 바꾸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한국교회 최초로 담임목사와 부목사가 교체되는 특별한 경험”을 소개했다.

노지훈 목사가 2005년 12월 서울에서의 사역을 정리하고 익산에서 먼저 사역을 시작했고, 6개월 뒤인 2006년 6월 조정환 목사가 처음 익산으로 내려왔다. 조 목사는 “(하나님께서 제게) 낮은 땅 익산으로 내려와 개척을 하신 노 목사님을 섬겨야 한다는 마음을 주셔서, 2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부교역자로 꿈이있는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얼마나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지 모른다. 꿈이있는교회를 섬기는 동안 참 많은 성장과 성숙이 제 삶에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겨우 35살의 젊은 나이에 이 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 꿈이있는교회에서 사역해 오신 노 목사님은 CHE 선교전략으로 도심의 교회들을 세우는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담임목사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부목사의 자리로 역할을 바꾸자고 하셨다”고 전했다. 그러면 그는 “세습과 권리다툼을 일삼아 온 한국교회를 생각하시고 제안하신 일”이라고 덧붙였다.

조 목사는 “한국교회 최초로 담임목사와 부목사가 교체되는 특별한 경험을하게 된다”며 “저는 성도들의 만장일치로 청빙을 받고 아직 연소함으로 배워야 할 목회의 경험들을 채우기 위해 모범이 되는 교회들을 탐방하고 훈련 과정들을 연구하는 동안, 저의 빈 자리를 부목사로 내려오신 노 목사님께서 얼마 동안 섬겨주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오래 전부터 성도들에게 공지하고 준비하였지만, 이런 상황이 혼란스러운 성도들을 (노 목사님이) 끌까지 돌봐주시면서 그분들을 이해시키며 교회를 떠나지 않고 후임목사님을 둡고 세우도록 설득해 주시다가 조용히 떠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만장일치로 저의 청빙을 찬성해 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 목사님은) 5년만 더 계시면 원로목사가 되시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익산으로 내려오셨던 것처럼 다시 비전을 따라 움직이신다. 부목사로 역할을 바꾸시고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도 일체의 사례비도 받지 않으시고 떠나실 때 퇴직금도 전혀 받지 않으신다고 설교 시간 선포하시고 그대로 실천하시는 모습이 존경스럽고 죄송한 마음이 함께 있다”고 덧붙였다.

조 목사는 “청년시절 전도사 때도 목사 인수를 받은 부목사 시절에도 교역자가 성장할 수 있도록 유럽과 성지순례를 보내주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라며 “전도사 시절 꿈이있는교회에서 유럽여행도 할 수 있게 보내주시고, 담임목사 청빙받기 전에 성지순례는 꼭 다녀와야 한다고

하셔서 얼마 전 여행하고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때 방문한 가이사라 지역에서 북상할 기회가 있었다. 바울이 이 장소 가이사라에서 베스도 앞에서 자신을 로마, 가이사에게 보내달라고 호소했던 말씀을 생각하며, 내가 가야 할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해봤다. 말씀의 사역자로 살아가는 것, 한 교회의 부름을 받아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 무릎으로 몸부림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것,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꿈이있는교회 이 자리에 지키게 하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이 귀한 부름에 최선을 다해 달려가도록, 충성을 다하는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떠나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함께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글을 맺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해당 글에는 “아름다운 동행이다”, “이런 멋진 사역을 시작하신 두 분의 목사님을 응원한다”는 격려의 댓글이 연이었다.

조 목사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서울 동광교회 전도사 시절부터 노 목사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면서 인격적·사역적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며 “익산에서 부교역자로 섬기면서 먹고 자는 일상적인 것들까지 함께하는 동역의 기간 동안, 목회자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견문을 넓혀주시기 위해 정말 많은 힘을 써주셨다”고 했다.

조 목사는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특히 목회자로서 강단에서 힘 있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설교 훈련이었다고 전했다. 설교를 한 번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줄 뿐만 아니라 세세하게 피드백을 주고, 각종 설교 관련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조 목사는 2017년 예장 합동 총회가 종교개혁500주년을 맞아 교단 차원에서 개최한 전국신학생 설교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익산 사역 초기 의무소방으로 군생활을 하는 동안 주말에만 사역할 수 있음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페이스북에서 밝힌 것과 같이 전도사 시절과 담임목사 청빙 직전 견문을 넓혀야 한다며 유럽여행과 성지순례를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도 “당시 얼마나 교회가 재정적으로 치열한 상황인지 저도 잘 알고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14일 노지훈 목사의 페이스북에는 ‘새 직장(익산 꿈이있는교회 부목사)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올라와 있었다.

스스로 부목사의 자리로 내려온 노 목사가 현재 가장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는 건 CHE(Community Health Evangelism, 지역사회선교전략) 사역이다. 지역사회 개발과 전도, 양육, 교회 개척을 통합한 전인적인 선교 전략을 추구한다.

이 외에도 노 목사는 연예인 사역단체 미제이(MEJ)의 지도목사



## 청교도들이 미국 사회에 미친 영향

1.) 월리엄 브래드포드와 플리머스 식민지 사람들(분리주의자들)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거친 바다를 건너서 신대륙에 도착한 승객과 선원들 중에서 까다로운 청교도들 41명은 배에서 내리기 전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것을 메이플라워 서약(Mayflower Compact)라고 부른다.

그들은 본국이나 영국의 국왕과 상관없이 a) 자체적인 민간 정치체제를 만들 것, b) 식민지 사정에 잘 맞으며 식민지를 위한 법률과 조례, 법, 헌법이나 직책을 만들고 준수할 것을 서약했다. 그리고 이 일을 주도적으로 맡았던 인물로는 존 카버와 월리엄 브래드포드가 있다. 우리는 월리엄 브래드포드와 초기 식민지 개척 당시를 살펴보면서, 청교도들이 미국 사회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추수 감사절의 유래

배에서 내린 청교도들은 존 카버를 초대 정착촌장으로 세우고, 7채의 집을 짓고 신대륙에 정착하고자 시도하였다. 첫해 겨울에 50명이 넘는 사람이 영양실조로 죽고, 봄이 왔다. 영국에서 가져온 씨앗을 파종하였으나 실패하고, 가을이 닥쳤다. 이때 아브나키 인디언들이 찾아와서 도움을 주었고, 스쿠안토라는 이름의 인디언이 통역을 해주었다.

그 봄에 촌장인 존 카버가 죽자, 월리엄 브래드포드가 39세의 나이에 촌장이 되었다. 가족들이 죽었고, 가을이 되어도 궁핍하기는 마찬가지였으나, 사냥과 채집으로 음식을 장만하고, 인디언들을 초대하여 축제를 벌였다.

추장 마사소잇과 약 90명의 인디언들이 찾아와서 3일 동안 축제를 벌였다. 인디언들은 사슴을 여러 마리 사냥해 와서 모두가 즐기며,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것이 추수 감사절의 유래이다.

### \*공복으로서의 봉사 정신

월리엄 브래드포드는 이듬해(1622년)에 다시 플리머스의 주지사로 선출되었고, 이후로 31번 주지사로 선출되어 33년 동안 공직을 수행했다. 왜냐하면 브래드포드야말로 참으로 식민지 주민들의 편에서 주민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지켜주며, 의적으로부터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해줄 수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브래드포드가 식민지 주민들에게 누를 끼치기 싫어하여 급료를 받지 않고 일하자, 이를 알게 된 주민들이 강제적으로 월급을 책정하여 지급하기도 하였다. 아직까지도 미국인들의 피에 흐르는 봉사정신은 어느 날 그냥 형성된 것이다.

또한 브래드포드는 결코 자기에게 주어진 공직이나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 1630년에 영국 추밀원이 뉴잉글랜드의 와이(Warwick) 지역 땅의 불하권을 브래드포드 개인에게 주었지만, 브래드포드는 혼자의 이익을 삼지 않고, 이를 이민자들과 함께 분배하였다. 브래드포드의 재산은 죽을 때까지 집 한 채와 작은 농장이 전부였다. 이러한 청렴결백은 미국의 정치가들의 모범이 되었고, 후대의 미국 정치 지도자들의 자질을

결정하는 장대가 되었다.

###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 제도

브래드포드와 그 외의 플리머스 이민자들은 1630년대 중반부터 <일반적인 원칙>(General Fundamentals)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였다. 이것은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뉴 플리머스의 동료들이 우리는 모든 특권을 부여받은 영국 정부의 자유민으로 법령을 선포하고 법을 제정하고 설립하기 위해 여기에 모였다. 어떤 법령이나 부칙, 법 또는 규칙도 현재나 미래에 우리를 향해 강제로 만들어질 수 없고, 자유민이나 동료들의 모임 또는 그들의 법적 인 대표들의 동의를 받아 만들어지거나 부과될 것이다.”

이러한 정신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며 민주주의와 법치를 존중하는 미국인들의 가치관이 되었다. 이것은 미국 헌법의 기초로 연결되었다.

### 2.) 존 윈스럽과 뉴잉글랜드(비분리주의자들)

1630년 3월 윈스럽과 일행은 모두 17척의 배로 영국의 사우스암턴에 모였다. 존 코튼 목사의 환송 설교가 있었고, 모두 신대륙을 향하여 떠났다. 윈스럽은 항해 중에 행한 설교에서 모든 이가 우러러 보는 “언덕 위의 도시”를 건설하자고 역설했다. 이민의 목적은 첫째로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고, 둘째로 성경 말씀에 인도되는 거룩한 정부를 세우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교하였다.

### \*신정 정치사상

존 윈스럽은 신대륙에 도착한 직후에 자유민들을 소집하여, 뉴잉글랜드의 정부에 관하여 상의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성경에 기초한 법을 만들고 성도들이 다스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사람이 통치자가 되어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래서 참정권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당시 영국이나 유럽에서는 지주나 남자에게 참정권을 주었으나, 식민지에서는 교회 회원에게만 참정권을 주기로 의결하였다. 그리고 교회 회원이란, 성경적으로 바른 신앙을 고백하며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회심 체험을 한 사람을 교회의 회원으로 인정했다. 이런 교회 회원에게만 선거권을 주었다. 이러한 정치 제도는 도전을 받기도 하였으나, 미국의 헌법과 건국의 기본 정신이 되었다. 또한 이들은 뉴잉글랜드를 중심으로 교회의 중심을 수직적인 계급 보다는 교회의 회중을 중심으로 하는 회중 교회 제도를 확립했다.

이들이 미국 사회에 끼친 가장 지대한 공헌은, 한 마디로 “현대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가장 빛나는 국가를 세웠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이들의 결정적인 공헌은 법이 지배하는 사회를 확립한 것이다. 재산이나 계급보다도 법이 우위에 서서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다.

3.) 청교도들은 교육을 중시하여 이민 초기부터 학교를 만들어 교육에 힘썼다. 이러한 교육기관들은

대개가 신학교로 출발하였다. 우리가 아이비 리그라고 부르는 동부의 명문 대학들이 그것들이다. 하바드(1638), 예일(1701), 프린스턴(1746) 그리고 닷마스(1754) 등이 청교도들이 세운 대학들이다.

### \*참고 자료

- 최상준, 교회사 (L.A., 베데스다 대학교, 2009)
- 오덕교, 청교도 이야기 (서울, 도서출판 이레서원, 2002)
- 마크 A. 놀, 최재건 옮김, 미국 캐나다 기독교 역사 (서울, CLC, 2005)



## 청교도 미국도착 400주년 기념 성경테마여행

**“청교도의 신앙으로 돌아가자!!”**

청교도 미국 도착 400주년을 기념하여 기독일보와 WIW Ministry에서는 미국역사의 시작점인 보스톤의 역사관광지 그리고 청교도가 미국에 정착한 역사를 볼수 있는 아름다운 바닷가와 마을들을 돌아보며 청교도의 신앙을 돌아보는 일정으로 안내합니다.

### 날짜 : 5월 12일 / 5월 13일 - 선착순모집

일정 : 플리머스 청교도 도착한 랜딩플레이스  
청교도들의 마을 "Plymouth Plantation"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명한 Cape Cod 청교도 첫 도착한 항구  
400년전 모습으로 다시 복원된 메이플라워 호  
미국의 역사를 볼수 있는 프리덤 트레일  
동부의 아름다운 경치 감상



\$479  
+ 항공요금

\$519  
+ 항공요금

\$499  
+ 항공요금

### 노아의 방주를 타다 !!

날짜 : 3월 10일 / 4월 14일 / 5월 12일 / 9월 15일 / 10월 13일 / 11월 10일

일정 : 창조박물관 견학(천지창조, 예수님의 사역)  
노아의 방주 테마파크  
현대의 생활모습을 거부하며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살아가는 신앙공동체인 아미쉬 마을  
클리프티 주립공원을 아름다운 경치 감상  
시카고 시내 관광

### 청교도의 신앙으로 돌아가자! 청교도 미국도착 400주년

날짜 : 9월 22일 / 10월 20일 / 11월 3일

일정 : 플리머스 청교도 도착한 랜딩플레이스  
청교도들의 마을 "Plymouth Plantation"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명한 Cape Cod 청교도 첫 도착한 항구  
400년전 모습으로 다시 복원된 메이플라워 호  
미국의 역사를 볼수 있는 프리덤 트레일  
동부의 아름다운 경치 감상

### 필라델피아를 가다! 말씀과 역사를 따라서

날짜 : 4월 21일 / 5월 19일 / 6월 9일 / 9월 8일 / 10월 6일 / 11월 10일

일정 : 레위기의 성막을 그대로 재현한 성막 체험  
기독교의 브로드웨이로 불리는 2000석 규모의 성경 뮤지컬  
미국 최대의 아미쉬 마을 방문  
펜실베니아주의 아름다운 경치 감상  
믿음의 유산으로 세워진 프린스턴 방문  
미국의 역사를 볼수 있는 필라델피아 역사지구

#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 겨울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참,(진리의길) 암,(학문의 길) 삼,(십자가의 길)

신학대학교

신학과(B.A) | 126학점

신학대학원

- M.Div 교역학 석사과정 | 96학점
- D.Min 목회학 박사과정 (NYTS)

### 본교 지원시 특전

- 1)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대학(BA)과정이나 교역학 석사(M.DIV) 과정 지원자는 첫 등록학기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입학상담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 213-272-6031



PRINCETON BIBLE UNIVERSITY IN AMERICA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 CNA | RN 시험준비영어반 학생모집

CNA, RN, 채혈사 입시를 위한 영어 강의가 개설됩니다  
미국 공립학교에서 36년간 영어교사를 하신 헨리김 선생님이 지도합니다.



헨리김 선생

CNA, RN 준비반

월,화,수 오후 2시~4시

채혈사 준비반

월,화,수 오후 4시 30분~ 오후 6시 30분

상담문의전화

**818-624-9106**

**213-272-6031**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2867 1/2 7th St. Los Angeles, CA 90057**

## 프린스턴 바이블 유니버시티 2020년 입학생 및 편입생 모집

프린스턴 바이블 유니버시티(PRINCETON BIBLE UNIVERSITY)에서 입학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받아 그의 사역자로 헌신하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학사과정**

(B.Th/B.A)

126학점

**석사과정**

(M.Div/M.A)

96학점

**박사과정**

(D.Min/Ph.D)

48학점

**학생수시모집**

등록상담전화

**310-678-6836**

**213-249-6924**



PRINCETON BIBLE UNIVERSITY IN AMERICA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2867 1/2 7th St. Los Angeles, CA 90057 | TEL: 310-678-6836

## 두려움을 다스리고 담대히 살아가는 지혜

인간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중국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두려움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하나님께서 거듭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것처럼 두려움이나 염려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의 정체를 파악하고 그 두려움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두려움을 다스리고 담대히 살아가는 지혜를 몇 가지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두려움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의 감정을 이해하고 인정할 때 두려움을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운 감정을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두려움은 감정입니다. 감정의 뿌리는 생각에 있습니다. 용이 고난 중에 한 말을 들어 보십시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욥 3:25상).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말씀을 주의해 읽어 보십시오.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렘 6:19상). 생각이 결과를 낳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것인

이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담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두렵게 만드는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을 강화시켜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 믿음이 강해집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을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용맹(勇猛)을 발하게 됩니다(수 1:9; 단 11:32). 믿음은 믿음을 낳습니다.

넷째, 예상되는 문제에 잘 대비할 때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잘 준비하게 되면 안식하게 됩니다. 어려운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독감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길은 손을 잘 씻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독감에 걸렸을 경우는

**담대한 믿음이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담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두렵게 만드는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스릴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면제된 사람은 없습니다. 두려움을 못 느낀다면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모세는 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탄로 나자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바로의 낯을 피해 미디안 땅으로 피신했습니다(출 2:14-15).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거듭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수 1:6, 7, 9). 엘리야는 이세벨의 공격에 두려워 도피합니다. 그는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원했습니다(왕상 19:1-4). 바울은 자신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고백합니다(고전 2:3). 두려움을 인정하십시오. 두려움을 인정할 때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둘째, 두려움을 노려보면서 그 정체를 파악하십시오. 두려움을

지를 잘 분별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사탄은 두려운 생각을 통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통해 사탄의 생각을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담대함과 확신을 심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바울은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딤후 1:7). 두려움의 정체를 파악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무지가 두려움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무지가 우리를 불안 속으로 몰아가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지식을 갖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올바른 지식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요 8:32).

셋째, 담대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물리치십시오. 승리하기 위해서는 담대함과 확신이 필요합니다(히 10:35; 엡 3:12). 의심하면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반면에 믿음을 갖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담대한 믿음

쉬어야 합니다. 피곤이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두려움을 증폭시킵니다. 또한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비타민을 섭취하십시오. 독감이 심할 경우에는 바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약 처방을 받으십시오. 문제 해결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강렬한 사랑과 사명감으로 두려움을 다스리십시오. 성경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요일 4:18상)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처럼 강한 것은 없습니다. 또한 사명의식은 죽음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바울은 주 예수님께 받은 사랑, 즉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았습니다(행 20:24). 그의 믿음은 죽음을 초월한 믿음이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 두려움은 당황합니다. 두려움은 무력해집니다. 부디 올바른 지식과 사랑과 믿음 그리고 사명감으로 무장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승리를 뵙습니다.

**웨스턴길, 1가와 2가 사이, 더 넓은 곳으로  
확장기념 플로어**

수술 않고 해결합니다! 척주통증·좌골신경통

2020년형 전자동

전동거꾸리 Z-UP

영국의 뉴캐슬 대학에서 임상실험으로 허리 수술을 예정했던 환자의 80% 이상이 척추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후 유럽에서는 척추질환 치료 DP수술 대체 치료로 Z-UP 전자동 전동거꾸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통증을 유발하는 척추디스크는 반듯하게 제자리로 가라!

**하루 5분**

허리 통증, 손발저림 통증,  
모든 통증을 없앨 수 있습니다

월~토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무료 체험** 하려 오세요

**LOLC Inc.**  
For the Spirit & Body



“지난 20년간 한인타운 스테디셀러”

**후지미 마사지체어  
최초 플로어 세일**

한국인 체형에  
가장 맞는 마사지체어  
Massagechairtechnicians.com에서  
2019년 미국 내 No.3

\*Fujimi.us의 GT 700 massagechair LOLC Edition 플로어 전시품에 한함.

\$10,500  
**\$5,900**  
TAX 및 배달료 포함

Tel. 213-700-8382

147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웨스턴길, 1가와 2가 사이)

## 내려놓음



송재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그럼 구체적 성경에서 교훈하고 있는 “내려놓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내려놓음이란 단순히 무언인가를 포기하거나 용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후자는 우리의 인생을 표현하기 “무거운 인생의 명예를 짊어지고 길을 떠나가다 날이 저물어 밤을 동동 구르는 나그네와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했습니다. 즉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는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성경에 인물들을 사용하시기 전 항상 묻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그질문은 바로 “삶의 우선순위” 즉 “내려놓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어부로 살고 있던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당시 제자들과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성은 내려놓음(Set Down)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와같이 내려놓을 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은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려운 결단입니다. 그러나 “내려놓음”은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사람을 입게되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에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 유관순 서거 100주년기념 애국다큐영화

# 유관순과 8호감방

- 영어자막제공으로 영어권과 2세들에게도 큰 역사적 교훈을 줄 것입니다 -



2020년 3.1운동 101주년과 유관순 서거 100주년을 기념하여 세계유네스코에 역사인물로 등재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뜻을 알리고 전하고, 미주내의 교회들과 각 기관/ 단체모임 등에서 본 영화의 관람을 원하시면 공동제작자인 '기드온동족선교회 (GBMW)'로부터 자세한 상영 안내(아래 연락처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와 독감 극복을 위하여

코로나바이러스 즉 우한폐렴은 폐까지 깊숙이 감염이 퍼져 후유증으로 폐의 섬유화를 만들어 부들부들한 폐를 딱딱하게 하여 숨쉬기가 힘들어 집니다. 평생 후유증으로 남고 결국 한번 걸리면 평생 고통스러운 폐 질환을 안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면역력을 높여서 스스로 치료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박테리아는 보통 마이크로미터 (1000 분의 1mm)의 크기로 몸속에 침투할 수 있으나 세포속으로는 침투할 수 없는데 비해 바이러스는 이보다 훨씬 작은 나노미터(nm, 100 만분의 1mm)크기로 세포 핵 속의 유전자 속에까지 침투할 수 있습니다. 박테리아는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단세포 생물로서 스스로 살아가면서 번식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생물들은 스스로 생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는 리보솜과 같은 기관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필요한 에너지나 유기물을 만들어 낼 수 없으므로 스스로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온전히 생물의 범주에 속하지 못하고 깨끗하고 건조한 공기중에서는 생존하지 못합니다. 피부에 붙으면 5 분정도, 티슈종이에서는 15분정도, 플라스틱 표면에서는 이를 정도 살 수 있으며 점액 코로나바이러스는 사람에게 침투하여 발병한 바이러스의 일종입니다. 사스(SARS), 메르스(MERS)도 모두 코로나바이러스의 일종이며 계속 새로운 종류의 바이러스로 변형됩니다.

예방 및 치료에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최상화 시켜 유전자 자체가 바이러스를 격퇴시키게 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고 치료법입니다. 지구상의 어떠한 바이러스도 소금물 속에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소금물속에서는 즉시 터져 죽기 때문입니다.



1. 바하천일염 (KOSHERMINERALSEASALT.COM)은 간수 0% 중금속 0%인 미네랄 천일염으로 건강 유지 및 회복 특히 면역력을 높이는데 추천합니다.

대한민국 OECD 국가로서 암환자 500만명 당뇨환자 700만명 고혈압환자 1.000만명으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병원이 지천인 나라 전국민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나라에서 아직도 저염식을 강조하다보니 인체에 소금이 턱없이 부족하여 충분한 인슐린을 생산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염식으로 인해 암이나 당뇨 큰 질환 등이 늘고 병명도 모르는 희귀한 질환들까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루에 2500미리 이상 물을 마셔야 하고 소금은 반드시 80여가지 이상 미네랄이 함유된 천일염으로 25그램 이상 먹어야 체내염도 0.9%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 오염된 바닷물을 염전에 끌어들이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미세먼지, 황사 등이 섞여 만들어진 천일염은 간수를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심지어 발암 물질이 있습니다.

간수는 잘 알다시피 두부를 만들 때 흘어진 물질들을 뭉치게 하는 기능이 있어 우리 혈관속에 간수가 들어가면 혈전, 단백질, 콜레스테롤 등을 뭉치게 하여 혈전(폐 락)이 생성되며 이에 관상동맥이 막히면 심장근육에 산소와 영양공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심근이 괴사하게 됩니다. 심근 경색의 주 증상은 흉통입니다.

소금에서 나오는 간수로 생긴 결과로 혈전이 혈관을 막게 되면 심장 근육의 일부가 파괴(괴사)되는 경우가 심근경색증이고 돌연사 원인의 80~90%를 차지합니다.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이 생기는 심근경색은 사망률이 높아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50% 정도가 사망하고 치료를 해도 사망률이 10% 정도나 됩니다.

그동안 간수가 있는 천일염을 드셨다면 즉시 코서 미네랄 천일염으로 바꾸셔서 우리의 막힌 혈관을 청소해야 합니다. 조선시대부터 간수를 받아 두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특히, 한국사람들에게 혈관질환이 많은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 분들은 한국에서 천일염을 구입하면 창고에 두고 밑부분에 그릇을 대고 소금에서 떨어지는 간수를 4~5년간 빼지게 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간수로 두부를 만들고 민가에서는 자살용으로도 사용했습니다. 간수를 마시면 피가 굳어져서 죽게 됩니다. 순수한 우리말에 “○○씨가 뛰쳤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피가 되어져서 죽었다는 뜻입니다.

## 코서 천일염 만들어지는 과정 및 장점

코서 천일염은 간수가 0%로 유명합니다. 일반 천일염은 5 일정도만에 소금이 완성되지만 코서 천일염은 최고의 염도와 청정지역을 자랑하는 바다에서 물을 끌어들인 후 1년동안은 진흙 빨 속에 두어 염도를 높이고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이물질들은 진흙 빨 속에 가라앉게 하며 염도를 높인 바닷물을 정수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2년차부터는 강수량 5%밖에 안되는 염전에서 태양 빛과 바람 만으로 3년에서 5년간 천연 소금을 만듭니다. 코서 소금은 물을 만나면 분자분해를 일으켜서 몸 안에 있는 비정상적인 세포들을 죽이고 혈관을 청소해 줍니다. 소금은 특히 피를 돌려주는 역할을 하며 소금 없이는 물 한방울도 나올 수 없습니다. 평소 의사들은 싱겁게 먹으라고 하지만 응급실로 긴급하게 실려온 환자들에게 링거에 식염수를 넣어줍니다. 응급실에서 넣는 기초 수액은 환자의 혈관 확보를 위해서입니다. 응급환자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면 혈관이 쪼그라들어서 혈관 주사를 놓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 연탄가스를 마시면 죽을 수도 있었지만 우리의 선조들은 동치미 국물(소금물)을 마시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바하천일염은 순도가 최소 98%로서 짠맛 조절에 가장 적합합니다. 바하 퍼시픽 청정 지역으로 선정된 바하만 지역으로 오랜 숙성을 통해 소금 결정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어 적은 양으로도 짠 맛 기호를 충족시킬

## \*100 세 시대에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건강을 생각합시다!!

암염이나 정제염은 염화 나트륨(NACL)으로서 미네랄이 없습니다. 당연히 미국의 의사들의 이론은 소금은 많이 먹지 말라고 하게 되어있습니다. 한국 의사들이 미국의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소금을 많이 먹지 말라는 이론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체는 70%가 물입니다. 그냥 물이 아니라 0.85%의 소금 물입니다. 이 링거가 0.9%의 소금물인 것입니다. 0.9%의 식염수가 혈관속으로 바로 들어가면 우선 사람이 깨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무지한 관료들은 천일염을 비위생적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미국 의사 윌레이 쓴 책 ‘죽은 의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책을 보면 천일염을 먹였더니 환자들이 약을 끊었다는 임상 실험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소금의 역할은 방부제입니다. 인체 속에 염도가 부족하면 몸이 썩습니다. 즉 부패합니다. 부패하는 현상은 어떤 것인가? 바로 각종 염증, 아토피, 무좀 등의 세균 번식

입니다. 대부분의 병은 세균성입니다. 그나마 먹는 소금이 천일염일 아니라 맷소금, 꽃소금 등 정제염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몸이 부패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통 당하는 사람들을 본적이 있는지요? 온몸이 흉해지고 진물이 나는 등 몸 속에 염도가 부족하여 사람의 몸이 부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패를 방지하는 물질은 소금과 알코올입니다. 부패 방지를 위해 사람의 몸은 무엇 인가를 요구합니다. 이때 현대 인들의 특징은 바로 설탕을 좋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설탕으로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에 절인 배추나 음식은 상하지 않습니다. 몸에 염증이 많다는 것은 곧 부패했다는 뜻이며 한글로는 곰팡이, 영어로는 바이러스 더 쉬운 말로는 썩어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몸에 소금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현상을 알아야 합니다.

## “천일염은 현대인의 필수다”

마트에서 판매하는 식염을 퇴치하시고 우리 코서 천일염으로 새롭게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2. 바하함초는 청정지역에서 생산되어 수많은 기적을 만들며 건강의 역사를 지켜온 바다의 산삼입니다. 특히 폐의 섬유화를(딱딱함) 막아주고 혈관을 청소하여 우리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슈퍼푸드로 등극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함초를 바다의 산삼, 중국에서는 신초 또는 장수초로 불리는 신비의 바하함초를 소개합니다.

3. 각종 암, 혈관 청소, 당뇨, 속변제거 및 변비 등의 치료 예방과 면역력 강화에 최고 효과를 보이며 특히, 폐와 간 건강을 위하여 햄프함초환을 소개 합니다.

\*햄프함초환은 독특한 능력으로 위와 대장 안에 들어온 바이러스를 즉시 사멸 할 수 있습니다.

\*폐와 간을 보호하고 면역력 증강을 위해서 햄프함초환을 강력 추천합니다.

[www.HempBioUSA.com](http://www.HempBioUSA.com)



4.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치료예방에 신의 선물 햄프플러스를 강력 추천합니다.

세계 보건기구가 Hemp oil & CBD 가 치매 예방 및 파킨슨 병에 탁월한 치료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치매는 본인 및 가족에게도 큰 시련입니다. 과학적인 증명에 의해 바이러스를 소멸시키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CBD는 침착 된 아밀로이드를 성공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알츠하이머의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선물하여 노년을 건강하게 즐겁게 해 드립시다!!

[www.TheHempPlus.com](http://www.TheHempPlus.com)

## 코로나바이러스는 소금물에 즉사하는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한인사회건강을 위하여 바하천일염 (코서소금)을 1인당 1봉지(100g)씩  
2/29(토) 오후 3시부터 선착순  
500분에게 무료로 나누어 드립니다.

(주의사항: 본제품은 질병을 병리학적으로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며 건강 보조 기능식품입니다.)

E.U.M Hemp Cafe  
(213)386-3896

바하천일염, 바하함초분말  
도, 소매 판매합니다.



E.U.M Hemp Cafe  
이음 hemp 카페  
전시판매장

중앙일보

[www.chdaily.com](http://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Classified AD

훼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ntrading.com](http://www.alexkimn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http://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제단/직접제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 CD Printing

CD전문 주님미디어입니다.  
교회설교, 부흥회 시디 앤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령,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media.com](http://www.junimmedia.com)

##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amp; Moving

[godfist91@gmail.com](mailto: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 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 213.383.1230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mailto:inexcollisioncenter@gmail.com) FREE ESTIMATE • TOWING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 CAKE.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mailto: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업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이제는 안심하자!

##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프란트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 리프팅/ 지방분해 최신장비 도입

★ 리프팅 라인 ★ 부분 지방분해 S라인

[4회 \$999] [8회 \$999]



탈모

치질

감상선

당뇨



##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7~25lbs

- 손 가락
- 발 가락
- 마디관절

류마티스 관절통증  
퇴행성 관절통증  
손톱 발톱 질환

배째는 숙면제거약  
먹으면서 체중 줄고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 50  
한달분

“ 만성두통, 양쪽 어깨 통증, 뒷목 끙기고 귀울림(이명), 어지럽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메슥거리고, 꿈이 많고 깊은 잠을 못 자고, 한쪽 얼굴이 감각이 없거나  
눈과 입 주위에 경련, 손과 팔이 저릿저릿하고 시큰거리는 마비증, 턱관절 장애 T.M.J.”

## 교통사고 전문병원

- 초강력 전력제
- 원형탈모, 지속한 비듬
- 알러지, 콧물, 코막힘, 눈가려움증, 천식
- 서해부 통증(사타구니)
- 치아 미백 파우더(3달분 \$60)
- 미용침, 아토피, 각종 피부병
- 수족이 암울처럼 냉한 분
- 발뒤꿈치 통증, 다리 쥐오름
- 옆구리 통증(협통)
- 10일 이상 자궁출혈
- 요실금, 정립선 비대증
- 자궁이 내려앉는 증상

- 치질(항문 문제로 하혈이나 통증)
- 자궁 물혹이나 통증(월경통, 하혈)
- 오십견, 쇠골 신경통, 요통, 뮤마티스 관절염
- 안면 신경마비, 중풍, 심근경색, 지독한 어지럼증
- 각종 위장병, 불면증, 핫플러쉬, 불안초조, 식은땀
- 감상선 당뇨병, 여드름
- 다리가 저리고 끙기고, 무릎통증
- 골프 엘bow우, 테니스 엘bow우
- 발간 코, 붉은 얼굴, 머리 속 두드러기
- 자궁 암구 근처에 물혹, 근종 수술 안해도
- 몸 전체 중에 밖으로 나온 혹이나 지방종
- 구연산 캡슐 취급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Clinic & Herb

## 영선한의원

영업시간  
월~금, 10시 ~ 5시  
토 10시 ~ 2시

Tel. 213 380 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와 아드모아)

아트설교연구원 인문학 서평 신학과 인문학

# “우리 목사님은 세상을 너무 몰라요” 진짜 의미는?



그리스도인에게  
왜 인문학이  
필요한가?  
김형석  
두란노 | 252쪽

바른 생각,  
바른 신앙을  
위한 지식  
인문학으로  
기독교와 인간을  
이해하다

저자는  
그리스도인일수록,  
특히 종교 지도자일수록  
동서양을 넘나들며  
인류사에 영향을 준  
고전을 읽을 것을 권한다.

목사가 <논어>도  
안 읽었다면  
지성인으로서 결격자라고  
까지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사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도  
인간에 대해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인문학 열풍, 교회 안에서 예외  
인문학을 인본주의로 오해하기에  
청교도, 인간 이해 중시해서 인문학  
공부

전 세계적으로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인문학 열풍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다.

민주화 시대를 지내온 우리나라에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기로에서 있다. 선진국 대열로 들어가는 단계에 필요한 학문이 바로 인문학이다. 다음 단계는 고고학과 인류학이다.

이런 과도기적인 상황 가운데, 한국 사회에 인문학 열풍이 부는 것은 당연하다. 일반 사회에서는 이미 인문학 열풍이 불고, 인문학에 대한 공부들이 자리매김을 해가고 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반응이 시큰둥하다. 성도들보다 목회자가 더 그렇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인문학에 대한 오해 때문이다. 인문학을 ‘인본주의’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고 살아가는 ‘신본주의’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신본주의’의 삶과 ‘인본주의’의 삶은 대치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인문학은 ‘인본주의’가 아니다. 인문학은 인간이 그리는 무늬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학문이다.

모리모토 안리 교수가 쓴 ‘반지성주의’라는 책에 보면 청교도들이 목사를 교육하는 과정이 나와 있다. 하버드 대학교의 전신은 신학대학이다. 청교도들은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가장 먼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웠다.

학교도 초등학교를 먼저 세운 것이 아니라 신학대학을 먼저 세웠다.

당시 하버드 대학교의 학위 취득과 정은 교양학 학사, 교양학 석사, 신학 학사, 신학 박사였다.

철저한 신양교육을 강조하는 청교도들이 신학 학사를 하기 전에 교양학 석사까지 공부를 시켰다. 왜 청교도들이 인문학 공부를 먼저 시켰겠는가? 인간 이해가 먼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누구인가, 어디로 가는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나 알  
아가는 것

앞서 언급했지만, 왜 인문학이 필요하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

리스도인에게 왜 인문학이 필요한가?>라는 책을 김형석 교수가 발간했다.

저자는 1920년 평안남도 대동에서 태어났다. 일본 조치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 시카고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 교수를 역임했다. 대한민국 1세대 철학자인 저자는 철학 연구에 대한 깊은 열정으로 제자를 길러냈다. 평생 동안 학문 연구와 집필에 심혈을 기울였다.

저자는 100세가 넘은 고령임에도 계속해서 방송과 강연과 접필 활동을 하고 있다.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이 인문학적인 소양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한다. 특히 사회의 정신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목회자들이 인문학에 관심이 없는 것에 대해 더더욱 안타까움을 호소한다.

저자는 인문학을 이렇게 정의한다. “인문학은 인간과 역사에 나타나는 사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자연과학이 인간이 필요로 하는 자연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사회과학이 인간의 사회적 삶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면, 인문학은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인간 자체를 연구하며 인간의 삶을 이끌어가는 사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어령 교수는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학문이 인문학이라 했다. 인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다. 내가 존재하지 않는 이 세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내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신(神)도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알아가는 것이다. 인간 자체가 어떤 존재를 아는 것이다.

인문학, 오래 전부터 신학과 공존  
신학이 인문학과 무관? 어불성설  
인문학 명답이라면, 성경은 정답

철학과 종교의 근본적 과제는 인간 존재와 인간다움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인간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절대자로서의 신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래 전부터 인문학은 신학과 공존해 왔다. 앞으로도 당연히 공존해야 한다.

칼빈의 ‘로마서 5장 2절 주석’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현재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고, 미래에 대한 지속적이고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누가 감히 영광에 대해 말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인은 왜 인문학을 공부해야 하는가?>라는 책에서, 김용규 작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재구성했다. “현재를 사는 인간과 세상에 대한 분명한 인문학 지식이 없고,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속적이고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말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은 신학자 칼 바르트가 ‘한 손에는 성서,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이기도 하다.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책에서 한재욱 목사는 또한 이렇게 말했다.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고, 인문학은 인간에 대한 학문이다. 이 둘은 동행할 때 온전해진다. 신학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간에게 그 사랑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

그런데 신학이 인간에 대한 학문인 인문학과 무관하다고 한다면 어불성설일 것이다. 하늘의 이야기와 땅의 이야기는 사실은 형제인 것이다. 하늘 높이 날아올라 일반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신령한 말만 한다면, ‘그들만의 잘난 이야기’가 된다. 반면 예배와 기도와 성경 말씀도 없이 땅의 이야기로만 가득한 성도가 있다면 그냥 ‘속물’일 것이다.”

그러면서 한재욱 목사는 ‘인문학은 명답이고 성경은 정답’이라고 말한다. <설교는 인문학이다>라는 책에서 김도인 목사는 설교가 인문학의 웃음을 입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중세 시대는 영적인 요소만으로 설득이 충분했다. 하지만 문화가 세상을 주도하는 21세기는 영적인 요소만으로 복음을 전하기가 턱없이 힘들다. 현대인들에게 다가가려면 그들에게 익숙한 언어 표현법을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설교자는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목사님이 세상 너무 모른다? 인문학

공부 부족

그리스도인, 세상의 빛과 소금... 교회  
바깥으로  
만물 끌어안아도 생기는 틈, 하나님  
만이 메꾼다

성도들이 가끔씩 이런 말을 한다. ‘우리 목사님은 세상을 너무 모른다.’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목사가 인문학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이다.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그 소임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청중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지 못하게 했다면 그 책임은 목사에게 있는 것이다. 청중을 이해하고 청중에 들려지는 설교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을 공부해야 한다.

인문학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부해야 하는 학문이 아니라, 꼭 필요한 학문이다. 그리스도인 자신에게도 필요하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셨지, ‘교회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만 머물면 안 된다. 세상 속으로 나가야 한다.

이어령 교수는 인간관계뿐 아니라, 인간이 만물을 끌어안으려 해도 어쩔 수 없는 틈이 생긴다고 하면서, 이 간격은 하나님만이 메꿀 수 있다 고 했다.

인문학은 한재욱 목사 말대로 인간에게 명답은 될 수 있어도, 정답은 제공해줄 수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 인문학이 줄 수 없는 정답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어야 한다.

**이재영 목사**  
대구 아름다운교회 담임

출처:아트설교연구원



김형석 교수.

교회행사, 수련회, 단체를 위한

## 맞춤형 후드 티셔츠

원하시는 문구와 로고를 넣어서  
우리교회만의 후드 티셔츠를  
예쁘게 제작해보세요!



### 할인 이벤트

25개	\$19.5	(개당)
50개	\$18.5	(개당)
100개	\$17.5	(개당)

only \$15.99 (개당)

\$15.99 (개당)

323.265.0244

TOPMEDIAUSA  
Custom Marketing Solutions For Your Business

GOOD FRIENDS  
FOR CHURCH  
굿프렌즈  
미니미

www.junimmedia.com  
junimmedia@gmail.com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은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 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유관순 열사 (1902~1920)

## 삼일절이 다가옵니다

잔악한 일제에 맞서 독립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운 우리 선조들 –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지금 너무도 많은 일본 제품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삼일운동의 시발점이 된 이곳 미국에 사는 우리는  
무엇을 먹고 마시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애국심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합니까?

이 캠페인은 일본산 원료를 전혀 쓰지 않는  
독립운동가 유일한 박사가 설립한 유한양행 뉴오리진 미주총판 셀리온 제공입니다



**CELLREON**



*NewOrigin*